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4호 (2013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김혜리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최현옥·김혜리

3세 아동의 가정환경 자극과 발달 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곽금주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곽금주

태아애착 척도(MFAS)의 타당화 연구 이경숙·김진하·홍수종·장형윤·신의진·김명식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정선아·최영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최영은·최미혜·남민지

한국 아동의 문장 구조 정보를 활용한 문장 이해 능력의 발달 이우열·김민주·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6 권 제 4 호 / 2013. 12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김혜리 / 1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최현옥·김혜리 / 21
3세 아동의 가정환경 자극과 발달 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곽금주 / 41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곽금주 / 59
태아애착 척도(MFAS)의 타당화 연구	이경숙·김진하·홍수종·장형운·신의진·김명식 / 81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정선아·최영은 / 93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최영은·최미혜·남민지 / 107
한국 아동의 문장 구조 정보를 활용한 문장 이해 능력의 발달	이우열·김민주·송현주 / 125

한국발달심리학회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정 선 아

최 영 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만 3-4세 아동이 성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데에 있어 성인의 성별과 아동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여자 성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동성의 선호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 양육자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여성에 대한 선호인지를 검토하고자 부정직한 남자 놀이 진행자가 아동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만 3, 4세 여아와 남아들이 성인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지를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3세 아동은 남아, 여아 모두 성인의 성별에 무관하게 성인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4세의 여아들은 여자 성인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경향을 보였으나 4세의 남아들은 성인의 성별에 무관하게 부정직한 성인의 진술을 빠르게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의 진위를 판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여아들에게는 동성 선호 편향성이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3세에는 아직 성별에 무관하게 성인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향성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도 시사한다.

주요어 : 신뢰성 판단, 성별, 성인 진술 신뢰 편향성, 동성 선호 경향, 아동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A8023629).

실험 자극 제작에 기여해 참여해 주신 이정탁님과 주나래님, 연구에 참여해주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아동들, 그리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아동발달연구실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포함된 여자 성인 실험자의 자료는 저자의 허락 하에 이 전 연구의 자료(고연정, 최영은, 2011)를 사용하였음.

†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yochoi@cau.ac.kr

어린 아동들일수록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다(Gnepp & Chilamkurti, 1988, Rholes & Ruble, 1984). 특히, 타인이 정직한 사람인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고, 이 타인이 성인일 경우, 만 3세의 아동은 타인의 증언을 맹신하는 경향조차 보인다(고연정, 최영은, 2011, 2013; Jaswal, Croft, Setia, & Cole, 2010). 예컨대, 스티커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 내어 많이 모아야 이길 수 있는 놀이에서 타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반복해서 속고 놀이에 지는 상황에서도 만 3세 아동은 계속 상대의 거짓 증언을 따르는 행동을 보인다(고연정, 최영은, 2011, 2013; Jaswal et al., 2010).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과 타인이 진술한 것이 엇갈릴 때, 자신이 목격한 것보다는 성인의 그릇된 진술을 따르기도 한다(Ma & Ganea, 2010).

불과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만 4세 아동은 3세와는 달리 한 두 차례 속고나면 상대방이 성인일지라도 타인의 증언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고연정, 최영은, 2011; 2013),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타인의 증언과 대치할 때, 자신이 목격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 & Ganea, 2010).

이처럼 타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나 정확성을 판별하고 이를 추후 행동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은 4세 무렵에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Corriveau, Meints, & Harris, 2009; Koenig, & Harris, 2005).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3세에 비해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 라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었다(김윤, 2011; 김윤, 송현주, 2010).

그러나 흥미롭게도 고연정(2013)의 분석에서는 만 4세가 타인의 증언을 신뢰하는 정도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아이들은 부정직한 성인을 관찰하고 난 뒤 이 부정직한 성인과 직접 놀이를 하게 되었을 때 30% 정도만이 성인의 진술을 믿었던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83%가 여전히 성인의 진술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 경향이 여자아이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 성인의 증언을 더 믿는 경향을 보인 것일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만 4세 이후의 아동들은 성인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자 할 때 동성 성인의 설명을 선호하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Ma & Woolley, 2013; Maccoby, 1988; Shenouda & Danovitch, 2013; Taylor, 2013). 예를 들어, Ma와 Woolley(2013)는 만 4세와 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성적 색상인 분홍색 사물, 남성적 색상인 파란색 사물, 그리고 중립적 색상인 노란색 사물을 두고 아동이 새로운 사물의 기능을 학습할 때 어느 성인(남, 녀)에게 물어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새로운 사물의 색깔이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거나 중성적이거나 상관없이 여자아이는 여자 성인에게, 남자아이는 남자 성인에게 묻겠다는 반응이 높아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동성의 성인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만 4-5세 아동에게 중립적, 여성적, 남성적 내용을 포함한 각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 것 같은 사람을 남, 녀 실험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더니 성 편향적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성의 성인을 선택하였지만 중립적 질문에 관해서는 자신의 성과 같은

실험자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Shenouda & Danovitch, 2013).

Taylor(2013)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녀가 둘 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한 상황이거나(예, 도자기 잔을 보고 남자는 머그라고 하고, 여자는 컵이라고 명명함), 둘 다 부정확한 정보/지식을 갖고 있음을 제시한 상황(예, 도자기 잔을 보고 남자는 전화기, 여자는 신발이라고 명명함)에서 모두 새로운 사물의 명칭을 둘 중에 누구에게 물어보아 알아내겠다고 질문하였더니 4-7세 아동들이 동성의 성인에게 묻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상대방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상대의 증언을 따를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동들은 동성의 성인을 더 신뢰롭게 생각하는 경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연정(2013)의 연구에서 아동들과 놀이를 하는 성인은 여성 놀이 진행자(20대 중반의 여성)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비해 여자아이들이 동성의 선호 경향성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여성 성인을 믿고 따르려는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Shutts, Banaji와 Spelke(2010)의 연구는 이러한 사물에 대한 동성 선호의 경향성이 3세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3세 아동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이나 놀이가 있을 때, 한 장난감은 동성의 아동이 선호함을 보여주고, 다른 장난감은 이성의 아동이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뒤 두 개 중 어느 것을 더 가지고 놀겠는지를 물었다.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동성의 아동이 선호한 장난감을 고르는 반응이 높았다.

고연정(2013)의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는 3세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에 비해 여성 성인의 증언을 더 맹신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장난감이나 특정 놀이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에 대한 결정과는 달리 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성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만 4세부터이기 때문일까? 고연정(2013)의 만 3세 아동의 참가자 수는 매우 적었기에(총 12명, 여아=6) 설블리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3세의 반응을 보면 남녀 아이들 모두 여성 성인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성인이 남녀 아이들 모두에게 신뢰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성인의 성별이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제안한다.

Quinn, Yahr, Kuhn, Slater와 Pascalis(2002)의 연구에 따르면 주 양육자가 여성이었던 3-4개월의 영아들이 남성의 얼굴보다 여성의 얼굴을 더 선호하고, 여성의 얼굴에 대한 재인 기억 수행이 더 좋음을 보고하였다. 반대로 주 양육자가 남성인 영아들의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 얼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얼굴에 대한 선호는 주변정보(예, 머리의 길이나 얼굴 모양)를 배제한 여자 아이 얼굴 원형에 대한 선호로도 이어져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호는 자매가 있거나 없거나에 무관하였다(Quinn et al., 2010).

이 결과들은 대부분의 주 양육자가 여성이고, 소수의 주 양육자만이 남성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어린 연령에서 여성을 전반적으로 더 선호하고, 이런 선호가 믿고 따르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Corriveau와 Harris(2009)는 3, 4, 5세 아동들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 집의 선생님을 낯선 선

생님보다 신뢰롭게 여긴다고 하여 인물의 친숙도에 따라 신뢰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15개월에 어머니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보이거나 불안정-저항형 애착을 보인 아이가 4세가 되면 어머니의 정보를 신뢰롭게 믿고 따랐지만 회피형 애착관계를 형성하였던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 정도가 낮은 타인보다 높지는 않아 발달 초기에 주로 경험을 하게 되는 주변 인물의 속성과 관계의 양상에 따라 아동이 믿고 따르게 되는 사람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Corriveau et al., 200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3세 무렵의 아동들은 동성에 대한 선호보다는 주로 자신의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선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여자아이만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도 여성 성인의 증언을 맹신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4세와 3세 아동들의 여성 성인에 대한 반응 차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남성 성인과 놀이를 할 때 아동들이 연령, 자신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면 동성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 여성 양육자라는 인물에 대한 선호에 의한 것인지를 조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인의 성별이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명한 연구는 없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모두 여성 성인이 신뢰도 판단 대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고연정, 최영은, 2011, 2013; Jaswal et al., 2010 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검토하고자 사전에 관찰했던 부정직한 남성 성인이 만 3, 4세 아동들과 놀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이 성인의 말을 계속 따르는지를 관찰하고, 이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고연정, 2013의 연구 2)와 직접 비교해 보았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고연정, 최영은(2011, 2013)의 실험들에서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진술을 하는 사람을 여성 성인이 아닌 남성 성인으로 바꾸어 제시하고 성인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아동들의 성별에 따라 순응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성 성인에 대한 아동의 반응과 직접 비교를 하기 위해 고연정(2013)의 연구 2의 부정직 조건 자료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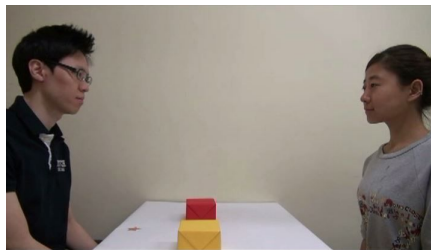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세 곳에서 총 66명의 아동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중 실험에서 사용된 네 가지 색의 이름을 알지 못한 아동 2명, 실험 진행을 중단한 아동 2명, 언어 발달 지연 아동 1명을 제외한 61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중 만 3세 아동은 28명(평균 42개월, 범위 36-47개월, 남아 16명), 만 4세 아동은 33명(평균 53개월, 범위 48-59개월, 남아 20명)이 참여하였다.

여성 성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와의 반응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고연정, 최영은, 2011)의 부정확 조건의 아동 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3세 아동 12명: 평균 42개월, 범위 36-46개월, 남아 6명, 만 4세 아동 16명: 평균 53개월, 범위 48-58개월, 남아 10명).

연구 과제 및 절차

본 연구의 과제 제작과 진행은 고연정과 최영은(2011, 2013)에서 사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영상들은 미리 촬영하여 편집한 후, E-prime 2.0(Psychology Software, In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핵심 과제는 스티커를 찾는 게임으로 성인 진술자와 아동 두 명

이 참여하게 된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동은 두 명의 성인(진행자 및 상대방)이 진행하는 게임을 관찰하게 된다. 이때 놀이 진행자는 두 개의 색깔로 구분된 상자 중 한 곳에 스티커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스티커를 숨긴 위치를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스티커가 어디에 있는지 가리키도록 하는데, 가리킨 곳에 스티커가 있으면 놀이 상대가 스티커를 획득하게 되지만 스티커가 없으면 놀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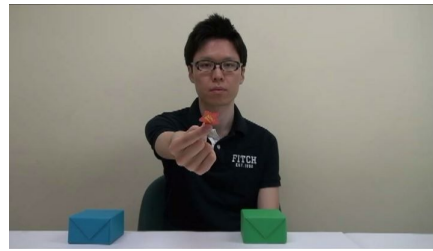
관찰 단계에서 제시되는 동영상 화면:
놀이 진행자(왼쪽)와 놀이 상대방(오른쪽)



검사 단계에서 제시되는 동영상 화면



아동이 스티커의 위치를 맞추지 못해 놀이 진행자가 스티커를 획득하는 장면



아동이 스티커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어 놀이 진행자가 스티커를 제시하는 장면

그림 1. 관찰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 사용된 동영상 자극들의 예

자에게 스티커를 주어야만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끝날 때까지 스티커를 더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관찰 단계와 검사 단계의 순서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관찰 단계에서 아동은 두 명의 성인이 스티커 찾기 게임을 3회에 걸쳐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이 중 놀이를 진행한 사람은 남성(20대 중반, 여성 성인과 연령을 유사하게 함)이었고, 관찰 단계 처음에 아동에게 두 성인의 놀이가 끝나면 남성 성인과 아동이 게임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3회기 모두 남성 성인은 스티커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상대방은 거짓말에 속아 3번 모두 스티커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그림 1 참조).

관찰 단계가 끝나면 남성 성인은 아동과 직접 게임을 5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놀이를 진행하는 성인은 우선 가림막으로 가린 상태에서 두 상자 중 한 곳에 스티커를 숨기는데 위치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두 곳에 모두 숨기는 척을 하였다. 가림막을 거둔 후에는 스티커가 어느 상자에 있는지에 대해 진술하였다(예, 스티커는 초록색 상자에 있어. 스티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검사 단계에서도 관찰 단계와 마찬가지로 놀이 진행자인 남성 성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티커의 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아동이 성인의 진술에 속아 스티커의 위치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화면에서 정답의 위치를 보여주고 놀이진행자가 스티커를 획득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그림 1 참조). 반면에 아동이 스티커의 위치를 정확히 맞춘 경우에는 화면에서 놀이진행자가 스티커를 주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험자가 아동에게 실제 스티커를 주었다.

실험에 사용된 상자의 색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이었고, 아동이 네 가지 색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였다. 제시되는 상자의 색과 스티커의 위치는 고연정(2013)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검사 단계에서 놀이 진행자의 진술에 따라 상자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1점을, 진술과 반대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놀이 진행자가 남자일 경우에 따른 아동의 신뢰 변화를 살펴보고자, 고연정(2013)의 부정직 조건의 원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림 2A-B에 남자 성인, 여자 성인과 5회기에 걸쳐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들의 연령에 따라 성인의 증언(지속적으로 스티커의 위치를 속임)을 따르는 비율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3세의 경우에는 성인의 성별에 무관하게 성인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4세의 경우에는 여자 성인의 말을 더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의 성별(남, 녀), 아동의 성별(남, 녀), 그리고 아동의 연령 집단(3, 4세)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하고, 회기(총 5회기)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한 혼합 모델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 [$F(1, 81) = 23.080, p < .001$]과 성인의 성별 [$F(1, 81) = 5.621, p < .05$], 회기 [$F(4, 324) = 3.067,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F < 1, p = .447$] 연령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에 근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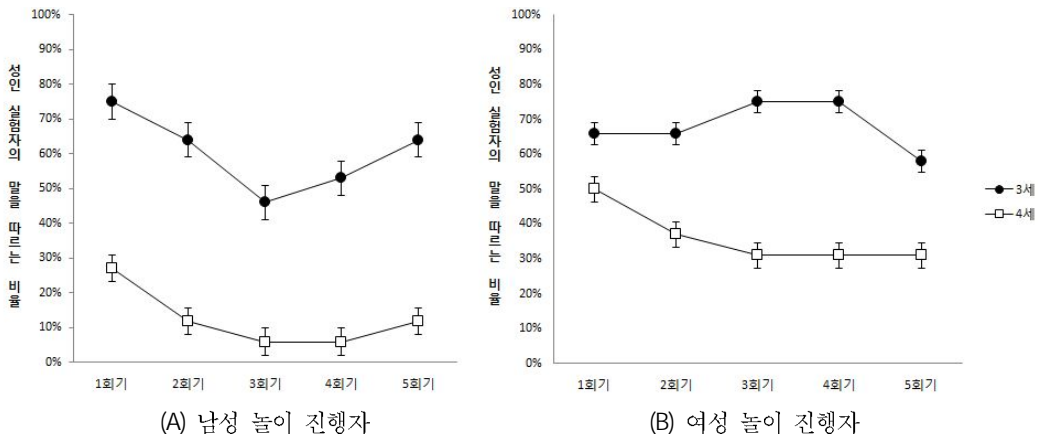


그림 2A-B. 각 회기 별 놀이 진행자의 말을 따르는 3,4세 아동의 비율과 표준오차: (A) 남성 놀이 진행자, (B) 여성 놀이 진행자(고연정, 2013)

였다($F(1, 81) = 3.298, p = .073$). 다른 상호작용 효과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_s < 2.2, p_s > .14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여자 성인과 남자 성인의 증언을 따르는 패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3, 4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성인의 성별과 아동의 성별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하고, 회기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한 혼합 모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A-B에 제

시되어 있듯이 3세의 경우, 세 변인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들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F_s < 1, p_s > .501$) 전반적으로 놀이를 함께하는 성인의 성별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인의 증언을 따르는 경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의 경우는 이와 달리 성인의 성별($F(1, 45) = 8.796, p < .01$), 아동의 성별($F(1, 45) = 4.429, p < .05$), 회기($F(4, 180) = 4.971, p < .05$)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고, 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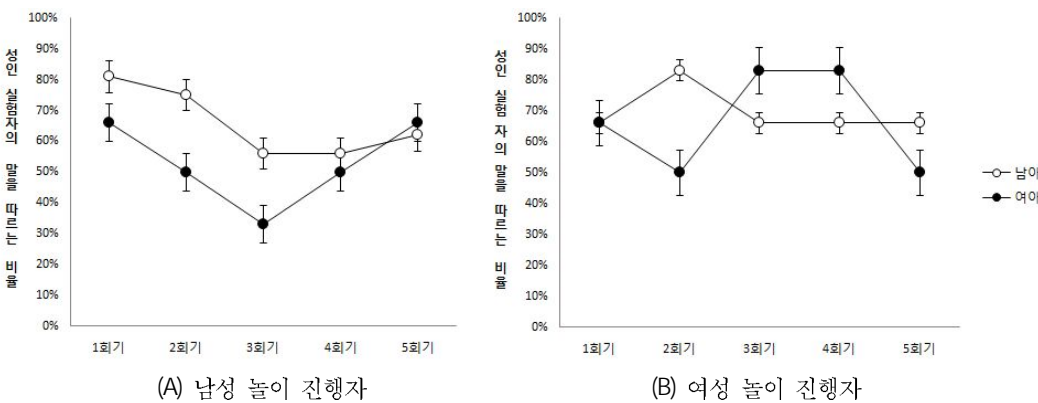


그림 3A-B. 각 회기 별 놀이 진행자의 말을 따르는 3세 남,여 아동의 비율과 표준오차: (A) 남성 놀이 진행자, (B) 여성 놀이 진행자(고연정,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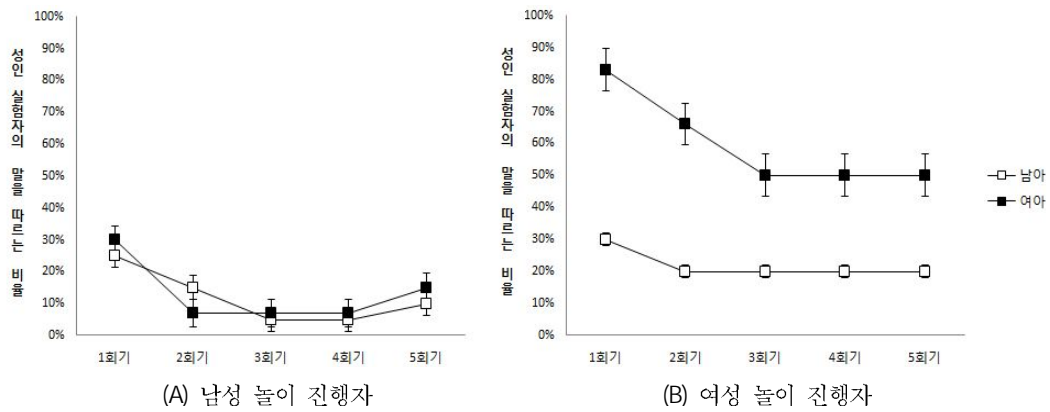


그림 4A-B. 각 회기 별 성인 놀이진행자의 말을 따르는 4세 남,여 아동의 비율과 표준오차: (A) 남성 놀이 진행자, (B) 여성 놀이 진행자(고연정, 2013)

과 성인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F(1, 45) = 3.646, p = .063$)도 유의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검증에서 나타났던 효과들이 4세에서의 패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림 4A-B에서 볼 수 있듯이 4세의 경우 여아들의 여자 성인 신뢰경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세 아동들의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5회기의 반응 비율의 평균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인의 성별에 따라 증언을 따르는 비율이 달랐는지를 아동 성별 집단을 나누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 아이들의 경우 놀이 진행자의 성별이 여성이었을 경우에 성인의 진술을 따른 비율(60%)이 남성이었을 때(1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7) = 3.269, p < .01$). 그러나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의 성별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자 성인은 22% 정도, 남자 성인은 12% 정도 따랐음. $t(28) = .830, p = .41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 4세 아동들이 성인의 말을 믿고 따를지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대상 성인의 성별, 아동 자신의 성별,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각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고연정, 2013)에서 보고된 4세 여아들의 놀이 진행자 신뢰 경향성이 이 시기에 관찰되는 동성 선호의 경향성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선행연구와 동일한 상황의 실험을 여자 성인에서 남자 성인과의 놀이로 구성하여 아동들에게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3세 아동의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가 이 시기의 아동에게는 동성 선호보다 주 양육자와 유사한 인물(예, 20-30대 여성)에 대한 신뢰 경향성에 의한 것일지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의 경우, 상대 성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체로

성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3회에 걸친 관찰 단계를 통해 해당 성인이 부정직한 사람임을 목격한 이후에 나타난 것이어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3세 아동의 타인 증언 신뢰 경향성은 간접 관찰(고연정, 최영은, 2011)이나 또 다른 성인의 순응 여부(고연정, 최영은, 2013)등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편향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편향성은 동성의 성인에게서 더 두드러진다고나 주 양육자와 유사한 인물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간접 관찰 경험 후 3세 아동이 성인 신뢰 경향성을 극복하였음을 보고한 고연정과 최영은(201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극복은 관찰 직후 회기에 다소 국한된 일시적 반응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3세 여아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단계 3회기에서 여자 성인에 비해 남자 성인을 신뢰하는 비율이 30%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A 참조). 이에 비해 여자 성인과 놀이를 할 때에는 성인의 말을 따르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40%미만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그림 3B 참조). 추후 T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 검사단계 1, 2, 4, 5회기에서는 3세 여아들 사이에 성인의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3회기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6) = 2.138, p < .05$). 이와 달리 3세 남아들의 경우 전 회기에 걸쳐서 성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50-60%를 웃도는 신뢰 경향성을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미묘하게 나타난 3세 여아와 남아의 차이가 4세에서는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난 점이다. 본 연구의 4세 남아들은 함께 놀이하는 성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정직한

속성을 보인 성인들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4A-B 참조). 반면에 4세 여아들은 부정직한 성인이 남성이었을 때에는 남아들처럼 성인을 믿고 따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여성 어른이었을 때에는 그 성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경향을 50%정도까지 지속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상황에서 3, 4세 남자아이들은 타인의 성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반해서 여자아이들은 이에 영향을 받았음을 제시한다. 왜 이렇게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반응이 관찰된 것일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상이한 결과는 성 역할(gender role)이나 성과 관련한 명명하기(gender labeling)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성도식(gender schemes)에 대한 이해가 여자아이들에게서 일찍 발달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Poulin-Dubois, Serbin, & Derbyshire, 1998; Serbin, Poulin-Dubois, Colburne, Sen, & Eichstedt, 2001; 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학령전기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성에 대한 고정관념 지식이나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또한, 얼굴을 보면서 남자 어른인지 아이인지, 여자 어른인지 아이인지에 대한 명칭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인 경우 18개월부터 출현하는데 반해 남자 아이들은 24개월이 되어도 이러한 능력을 명확히 보이지 않으며(Poulin-Dubois, Serbin, & Derbyshire, 1998), 남녀 인형을 가지고 성 고정관념과 관련된 놀이 모방과제에서도 여자아이들은 24개월에 성 고정관념에 따라 남녀인형을 달리 골라 행동을 모방하였으나 남자 아이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Poulin Dubois, Serbin,

Eichstedt, Sen, & Beissel, 2002). 이처럼 성역할 등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출현이 이르기엔 남자아이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동성 선호의 반응이 여자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Taylor(2013)의 연구 결과도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Taylor는 4-7세 아동의 개별적 성 유형화(personal sex typing) 정도를 표준화 도구(POAT-PM)로 측정하고 이 점수들과 아동들이 동성 성인을 선호한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것은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성유형화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유형화 점수와 동성 성인을 선택한 정도와의 관계는 여아들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성이 높은 여아들일수록 새로운 지식(새로운 단어 습득 상황)을 구하고자 할 때, 성인이 정확한 지식을 보유한 여부보다 동성인 여성 성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남아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ylor(2013)는 이러한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단순히 여아에게서 성도식이 일찍 발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집단에 대한 선호 경향성이 여아에게서 더 높는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Powlisha, 2004도 참조).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 성 유형화가 발달하였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성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나 어린이집의 교사라는 형태로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의 정보를 신뢰할까와 같은 판단의 상황에서는 여아들과는 달리 단순한 동성의 선호와 같은 내집단 선호에 덜 의존하였을 것이라는 설명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이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Taylor(2013)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달랐다. Taylor(2013)에서는 남

녀 성인이 각기 자신이 가진 지식(예, 물체의 명칭)을 보여주고 나서 새로운 사물에 대한 학습 상황에서 둘 중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선택할지 고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 보유여부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판단을 하도록 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현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지식의 정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정직성)의 여부를 관찰 및 직접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성별에 따른 상이한 반응은 4세에서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내집단 선호에 기반을 둔 신뢰성 판단 경향이 새로운 지식을 누구에게서 구할지(예, 전문성)를 비교할 때만이 아니라 상대가 정직한가 부정직한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여아들의 내집단 선호에 따른 동성 성인 신뢰 경향성이 다양한 맥락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기제일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Taylor(2013)의 연구에서처럼 개별적 성 유형화(personal sex typing) 정도를 측정하여 아동의 경향성을 분석하거나, 양육자의 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애착 정도,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인의 진술 신뢰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연정 (2013). 신뢰성 판단에 있어서 관찰 경험 활용 능력의 발달-만 3-4세 아동을 중심으로

- 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고연정, 최영은 (2013). 만 3세 아동의 타인 증언 신뢰 편향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197-214.
- 고연정, 최영은 (2011).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에 관찰 경험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51-162.
- 구재선, 김혜리, 김경미, 양혜영, 고숙남, 정명숙 (2006). 아동의 성격 특질에 대한 이해 발달: 특질 추론과 상황적, 시간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1-20.
- 김윤 (2011). 만 3, 4세 아동의 거짓말 이해와 사실 추론 능력.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윤, 송현주(2010). 만 3,4세 아동들의 거짓말 이해와 사실 추론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71-87.
- Corriveau, K. H. & Harris, P. L. (2009). Choosing your informant: Weighing familiarity and past accuracy. *Developmental Science*, 12, 426-437.
- Corriveau, K. H., Harris, P. L., Meins, E., Fernyhough, C., Arnott, B., Elliott, L., Liddle, B., Hearn, A., Vittorini, L. & de Rosnay, M. (2009). Young children's trust in their mother's claims: Longitudinal links with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80, 750-761.
- Corriveau, K. H., Meints, K., & Harris, P. L. (2009). Early tracking of informant accuracy and inaccurac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331-342.
- Gnepp, J., & C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743-754.
- Jaswal, V. K., Croft, A. C., Setia, A. R., & Cole, C. A. (2010). Young children have a specific, highly robust bias to trust testimony. *Psychological Science*, 21(10), 1541-1547.
- Koenig, M. A., & Harris, P. L. (2005). Preschoolers mistrust ignorant and inaccurate speakers. *Child development*, 76(6), 1261-1277.
- Ma, L., & Woolley, J. D. (2013). Young Children's Sensitivity to Speaker Gender When Learning From Other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4(1), 100-119.
- Ma, L., & Ganea, P. A. (2010). Dealing with conflicting information: Young children's reliance on what they see versus what they are told. *Developmental Science*, 13(1), 151-160.
- Maccoby, E. E. (1988). Gender as a social categ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755.
- Poulin-Dubois, D., Serbin, L. A., & Derbyshire, A. (1998). Toddlers' intermodal and verbal knowledge about gender.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338-354.
- Poulin Dubois, D., Serbin, L. A., Eichstedt, J. A., Sen, M. G., & Beissel, C. F. (2002). Men Don't Put on Make up: Toddlers Knowledge of the Gender Stereotyping of Household Activities. *Social Development*, 11(2), 166-181
- Powlishta, K. K. (2004). Gender as a social category: Intergroup processes and gender-rol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lf*, 103-133.
- Quinn, P. C., Yahr, J., Kuhn, A., Slater, A. M., & Pascalis, O. (2002). Representation of the

- gender of human faces by infants: A preference for female. *PERCEPTION*, 31(9), 1109-1122.
- Quinn, P. C., Conforto, A., Lee, K., O Toole, A. J., Pascalis, O., & Slater, A. M. (2010). Infant preference for individual women's faces extends to girl prototype fac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3), 357-360.
- Rholes, W. S., & Ruble, D. N.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Child Development*, 550-560.
- Serbin, L. A., Poulin-Dubois, D., Colburne, K. A., Sen, M. G., & Eichstedt, J. A. (2001). Gender stereotyping in infancy: Visual preferences for and knowledge of gender-stereotyped toys in the second yea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1), 7-15.
- Shenouda, C. & Danovitch, J. H. (2013) Preschoolers' Trust in the Testimony of Males and Females: Accuracy Trumps Gender Stereotyp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2013.
- Shutts, K., Banaji, M. R., & Spelke, E. S. (2010). Social categories guide young children's preferences for novel objects. *Developmental Science*, 13(4), 599-610.
-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bout Others: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2), 147-183.
- Taylor, M. G. (2013). Gender influences on children's selective trust of adult testimon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5(4), 672-690.
- 1차원고접수 :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3. 12. 03.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4.

Does same-sex preference make 3-4-year-olds more gullible?

Sunah Chung

Youngon Choi

Chung-Ang University, Psychology

Prior research suggests that more than boys, girls have a stronger tendency to trust a testimony by an adult female.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is selective trust resulted from a same-sex preference that appears during preschool years, or to a general preference for a primary caregiver-like figure. In the experiment, children were first shown dishonest adult male playing games with another adult. They were then asked to play with this adult male. The children's tendency to believe the adult male's testimony was observed during this play session.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our results showed that 4-year-old girls were less prone to believe a dishonest adult male's testimony whereas they were much more willing to believe the dishonest testimony given by the same-sex adult. However, this tendency was not observed among 3 and 4-year-old boys. The findings suggested that girls tend to trust female adults based on a same-sex preference in situations requiring a judgment of accuracy or truthfulness. Furthermore, the results implied that 3-year olds might struggle to overcome the tendency to trust an adult's testimony.

Key words : selective trust, gender, bias to trust others testimony, same-sex preference